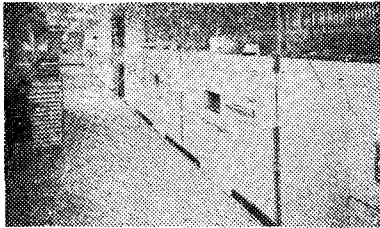


병아리 감별기술 습득에 대하여



이 중 길
<한국초생추감별협회·상무이사>

병아리 감별이란 갓 부화된 병아리를 암수로 구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1927년경 일본에서 시초로 착안 연구되어 실제 양계업에 응용되어 왔는데 이로써 양계경영에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하였으며 연이나 오늘날 양계업을 타 산업에 손색없는 대기업으로 발전시킨 근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감별기술 개발에 앞장선 일본은 재빨리 이 기술자를 양성하여 일본의 양계산업 발전에 일조가 되는 반면 세계 각국에 감별사를 파견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하였으며 오늘날 세계감별 업체를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해방 전 일본에 건너가서 감별기술을 배워온 몇몇 선각자들로부터 이 기술이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 양계산업이 농촌 부업형태로 그친 당시의 실정으로서 감별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므로 기술보급의 진도는 극히 미미한 정도였다.

그러던것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적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은 우선 식생활에서부터 소비수준을 향상시켰고, 이에 따라 양계산업도 종전의 원시적 형태에서 기업형태로 전업화하기에 이르렀으며 부수적으로 감별기술 인력을 급격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연이나 1965년도에 한국감별사로서는 처음으로 윤경중(현 감별협회 부회장)씨가 유럽 무대 진출에 효시를 장식하므로써 뒤 늦게나마 국내 감별기술계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켰으며 해외에서도 능히 선진 일본에 손색없는 실력을 인정

받게 되자 감별기술은 일약 주가높은 선망의 직종이 되었으며, 1965년도에 드디어 한국감별계의 응지를 집약하여 사단법인 한국초생추감별협회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감별협회는 감별사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해외 취업 알선과 후진양성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축산업계 독지가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매년 국고 보조하에 고등 감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83명의 해외 취업 감별사들을 세계 각국에 두게 되었음은 일천한 역사에 비해 괄목할만한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감별기술이 체질적으로 동양인에게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한국감별사들의 해외활동이 점차적으로 활발성을 띄고 있음은 자못 경하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사실이 마스크에 자주 오르내림으로서 사회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까지는 좋은 일이나, 이를 기회로 순간 일부 물지각한 자들이 개인 학원을 개설하여 감별사 단기 양성을 운운하며 터무니 없는 영터리 강습행위를 하고 있어 감별기술을 처음부터 배우고자 하는 후진들에게 여러가지 불미로운 피해를 낳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로서 감별기술의 건전한 보급과 해외시장개척에 암영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차체에 이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기술하므로써 초심자들의 참고가 되어 피해 예방의 자료가 되고자 한다.

1. 완전한 감별사가 되려면

모든 기술이 다 그러하겠지만 더구나 본 감별기술은 완전한 숙련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실제 취업이 불가능하다.

한사람의 감별사가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작업

량은 1만수를 상회할수도 있으므로 1%의 감별 오차는 1만수에 100수의 오판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95%의 정확율밖에 유지하지 못하는 감별사가 일을 했다면 1만수에 500수 이상의 착오를 내게 될것이며 이것이 모두 암컷인데 수컷으로 오판되었다고 하면 부화장 측으로 보서는 적어도 5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빚게 된다는 계산이 된다. 더구나 미숙련자의 경우 감별도중 병아리를 자주 폐사케 한다던가 발육에 장애가 가게끔 상처를 일으키는 것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95%의 정확율을 인정 받은 갑종감별사가 표면적으로 이러한 손실이 추정될때 하물며 그 이하의 실력자가 감별 운운함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문제삼고자 하는 일부 개인학원의 기술보급 수준이 가위 95%의 갑종도 양성해 내지 못하면서 온갖 방법의 광고 선전으로 감별사를 단기간에 양성해 낸다는 명목하에 엄청난 수강실습비를 거둬 들이면서 고등 실업자만을 대량 양성해 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약하면 감별기술을 완전히 이수하는데는 시력과 건강이 양호해야 뭇은 물론이려니와 무엇보다 실습재료인 병아리를 다량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력있고 양심적인 교육기관과 지도강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인적인 소질과 능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감별사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게끔 수련을 쌓으려면 1인당 적어도 3~4만 마리의 병아리를 관찰 연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 많은 병아리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100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개인으로서는 엄두를 내기도 힘든 일이나 지금까지 감별협회의 양성방법으로서는 1인당 1만수 가까운 병아리를 50% 국고 보조하에 구입하게 하여 몇 사람이 수회에 걸쳐 병아리를 교환 실습케 하는 방법을 택하여실습경비를 대폭 절감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및 지도강사의 선택문제인데 감별의 표준이되는 병아리의 생식기는 좁쌀알만한 크기의 작은 형태이지만 대부분이 기본형에 속하기 때문에 95%까지의 정확율을 기하

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나 나머지에 속하는 병아리의 생식기는 암수기준이 극히 모호하여 전문적인 실력자가 아니면 도저히 판별이 불가능하다. 감별기술의 성패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4~5%에 속하는 난해한 형태의 병아리를 제대로 판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판가름이 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자신도 이것을 미처 모르는 강사가 남을 지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 생김새를 제 나름으로 얘기하는 식의 년센스가 될 것이다.

감별기술도 타 기술과 같이 실습 재료를 장기간 재 활용할 수 있어 재료구입비가 저렴하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귀중한 재화를 들여 연구하려는 사람이 지도 기관과 강사의 잘못 선정으로 감별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끝내 우회 방황하고 만다면 개인적으로 이만 저만한 실망이 아닐 수 없겠다.

부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감별기술을 익혀 보고자하는 사람은 켜질나게 신문 광고로 유혹을 일삼고 있는 사이비 학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3개월 완성 운운의 말은 전연 터무니없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감별협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국비보조의 혜택과 권위진의 지도를 받던가 아니면 신용있는 부화장에 나가있는 실력있는 선배의 사사를 받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명시해 둔다.

2. 감별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감별사의 자격등급은 을종, 갑종, 고등(해외 파견자격)의 3등급이 있다.

자격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을종~100마리의 병아리로 15분 이내에 90% 이상 정확율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 2) 갑종~200마리의 병아리로 24분 이내에 95% 이상 정확율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 3) 고등~300마리의 백색 병아리와 200마리의 유색병아리를 합하여 계 500수로서 100수씩 5회로 구분 실시한다. 100수당 8분이내에 98% 이상의 정확율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5회중 단 1회라도 98%이하가 있거나 단 1마리라도 죽는 병아리가 있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감별사 자격시험은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시험규정에 의하여 1965년도부터 한국초생추감별협회가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4회정도 실시하게 되어 있다.

해외에 취역할 감별사는 필히 고등자격을 인정 받아야만 출국이 허용된다. 사이비 개인학원에서는 고의로 자격시험을 기피하여 수료생들의 응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영터리지도로 인하여 거리가 갑·을중시험에서도 불합격이 예상되므로 이로서 학원 운영에 미치는 치

명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각 해의 회사가 요구하는 감별사의 수준은 최소한 98%이상의 정확율과 시간당 1,000수 이상을 감별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웬만한 노력으로서는 힘든 일로서 이방면에 뜻을 둔 초심자들은 사전에 감별협회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고 치밀한 계획하에 착수하든가 지방에 있는 사람은 권위있는 부화장에 찾아가서 경력있는 감별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실패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참고로 년도별 감별사 해외진출 현황을 부기해 둔다. □□

감 별 사 해 외 파 견 현 황

주 별		년 도		65	66	67	68	69	70	계
		국 명								
미 주 지역	미 국			1	1	9	5	7	2	25
	카 나 다				2	5		2	1	10
	브 라 질			2	1		1		1	5
	알 제 리			1						1
구 라 파 지 역	영 국				2	2	1	5	3	13
	아 이 랜 드				1	1		2	2	6
	서 독				5	3		1		9
	이 태 리				1					1
	폴 투 칼				1			1		2
	이 스 페			2	1	1	2			6
	프 랑 스			1	1		2			2
	레 위 바				1			1		1
계				7	17	21	10	19	9	83명

감 별 사 현 황

도 별	서 울	경 기	충 북	충 남	경 북	경 남	부 산	전 북	전 남	강 원	제 주	계
울 중	15	4	1	1	5	3	8	1	3			42
감 중	148	22	9	35	41	35	45	3	15	3		356
고 등	31		4	3	9	8	2	1				58
계	194	26	14	39	55	46	55	5	18	3		456